

제16회 이일청 서양화가 개인전

전주 기린미술관, 30일까지 진행... “세상 모든 것은 우주 섭리 따라 움직이고 있다” 강조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욱)에서는 30일까지 이일청 서양화가의 16번째 개인전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00호짜리 37점이 1관과 2관을 메꾸어 커다란 붓질이 자연을 시원하게 그린다.

그동안 이일청 작가의 그림 세계의 변화 과정을 보면, 1970년대에는 자연 사생을 위주로 현장감있는 조형을 추구하여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혼합형 그림을 그렸다. 80년대에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산동네, 항구 등 인간의 삶이 숨쉬는 세계를 짙은 감정으로 윤곽을 처리하여 표현파적인 화풍을 구사했다.

1990년대에는 파스텔과 붓을 사용하여 풍경화와 꽃 등을 그려 화사한 조형 세계를 구사하였다. 2000년대에는 반구상의 형태 단순화와 자연의 근본 질서와 조화를 추구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관촬, 통찰, 성찰의 세계를 기본적인 단순화된 선과 색으로 상징성이 짙은 표현을 추구하였다. 2020년대 요사이의 자연 율례를 바탕으로 파랑색의 색채를 중심으로 밝아늘어 빛과 밤바다의 질푸른 조형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가의 이번 전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작가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작품은 하늘의 푸르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작가 특유의 터치와 색감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우주의 감성을 표출한다.



이일청 서양화가

특히 이번 전시 작품은 과거에 비해 빨강이나 초록 및 흰색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림이 생동감과 여백이 더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화면은 이미지로 표현되는 집약된 형상으로 작용한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들, 바람, 산, 새, 꽃들이다. 만물은 태어나고 시들어가며 생성과 소멸, 그리고 소멸 후 다시 생성하는 순환의 표현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작품전에는 오랜시간 키워왔던 명자나무를 가장 순수한 주홍의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색과 색의 긴장성은 화면에

강렬한 색채미를 보여주며, 변화하는 색조는 항상 새롭게 질서와 조화를 선명한다.

작가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생성의 연속성으로 인식되는 화면의 역동성이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환치되는 공간 조형 나무와 꽃 하나로 파생되는 시간성과 그 결과 화면의 본질을 찾기 위한 긴 여정 이미지로 표현되는 집약된 형상을 그렸다.

이 작가는 작가 노트에 ‘비묘한 감성으로 손끝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필획의 치열한 방향성은 화면에 흔적을 남긴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작업 세계는 자연의 탐구에서 시작하여 내면의 추상적 단순화의 과정을 통해 형상을 표출하는 것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인평 평론가는 ‘작가는 화가이기에 구도자였다. 자연속에서 하나의 푸르름으로 오토이 안겨 생명의 순간순간 빛어지는 빛을 깊이 응시하면서 그 깨우침 안에서 나타난 아름다움, 곧 내면에서 여과된 빛깔을 화폭속에 응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일청 작가는 1950년 6.25 전쟁 중에 태어나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미술학과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그동안 개인전 15회와 국내외의 단체전에 다수 참여하였다. 현재 전라미술상 운영위원장과 예사문 문화연구소 대표로 맡고 있다. 특히 전라청년미술상에는 화가이면서도 금일봉을 쾌척시키기도 한다.

/김재훈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3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展’

전북 지역 초등학교 대상 그리기 대회 수상작 25점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설전시관 로비에서 ‘제3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림전은 지난 6월 27일 전북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러진 ‘제3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로 꾸며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문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특선 18명, 입선 25명 등 총 50명의 입상작 중 특선 이상의 수상작 25점을 선보인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전주 신성초등학교 5학년 한주빈 학생의 ‘전주의 봄(무릉도원)’은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된 전주지도를 바탕으로 실감영상관에 상영된 미디어아트를 실감나게 표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평소 그림소재로 잘 사용하지 않던 전주지도에 섬세하고 실감나는 필치로 잘 그려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홍진근 관장은 “이번 입상작은 대회 당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된 문화재를 그린 작품들로서, 도내 초등학교들의 그림 솜씨와 문화



전주 신성초 한주빈 학생 ‘전주의 봄(무릉도원)’

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탄소 중립 ‘수수 나눔 기획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재단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이 2022 手秀(수수) 나눔 기획전 ‘공예·공유·공존 실현합니다’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탄소 중립 공예로 실천’이라는 주제로 펼치는 이번 나눔기획전은 박금숙(박금숙 닥종이 인형연구소 대표) 작가의 리사이클링 공예품 150여점을 선보인다.

재활용이 어려운 외안병을 리사이클링한 공예품 ‘지구의 씨앗’ 작품은 각양각색 새로운 쓰임과 모양으로 재탄생해 관람객에게 소개된다.

작가는 전시장 한편에 탄소중립의 이해를 돕는 아카이브 영상을 상영해 모두가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

다.

이와 함께 박 작가는 오는 16일 탄소중립을 소재로 한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 참석자 중 선착순 20명에게는 박 작가의 작품이 제공된다.

부득이 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또는 수수 나눔 기획전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김선태 원장은 “올해 탄소 중립 기본법이 시행될 만큼 탄소 제로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나눔 기획전을 통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앞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라’ 기획전시회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 10월까지 부안역사문화관서 개최

(사)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지부장 이은수)는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 ‘앞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라’이라는 주제의 기획전시회를 부안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시회는 14일 오후 2시에 오픈하여 10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부안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의의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동학혁명내에서 위상강화 하고자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배의명)이 주관하고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후원했다.

백산대회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은 정읍과 전봉준을 때

울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백산대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는 1894년 5월 1일(음력 3월 26일), 부안 백산에서 대규모의 군중이 혁명군으로 조직화 되고, 사대명의(강령)와 격문, 군율을 선포하고 관군을 격파한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려 하며, 동학농민혁명에서의 백산대회의 위상을 강화해야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기획전시회가 백산대회의 문학적 표현인 ‘앞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라’ 주제로 진행되어 더욱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러한 기획전시회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기획전시회에 참여한 (사)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 23명 작가들은 지난 4월부터 작품 창작활동 준비를 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열정을 보였다.

그렇게 심혈기을인 23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장 이은수 대표는 “전시되는 작품의 종류는 회화와 공예 등으로 이번 전시회 작가들의 백산대회 이해와 다양한 표현이 공명하다면 부안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을 찾아와 관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신간도서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높아져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폭염·폭설·태풍이 폭증하고 있다는 게 이 시대의 상식이 됐다.

“이 상식에는 오류가 가득하다. 지구는 불타고 있지 않고, 해수면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 않으며, 폭염·폭설·태풍 역시 폭증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공포심과 죄책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이슈를 팔아먹어 하는 여러 이해집단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과학차관으로 일한 스티븐 E. 쿠인 뉴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책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한국경제신문)을 통해 기후 과학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

판한다.

저자는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후과학이 학문적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후변화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자연의 영향과 인간의 영향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이른다.

저자는 달성 가능성이 낮은 탄소 중립 대책보다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장한다. 기후 변화 적응이란 대안은 인류 역사상 실현된 대응법이다. 말로만 배출량 감축을 주장하며 제자리 걸음인 파리협약을 넘어, 지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논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후변화 대응법이라고 전한다.

/뉴시스

